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8월 9일)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세종시 포교거점 광제사, 대들보 올리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9월 9일 세종 광제사에서 대웅전 · 한국불교체험관 상량식을 거행했다. 상량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백년만원력결집불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금곡 스님(총무부장)을 비롯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원행 스님의 친필 상량문이 쓰인 상량대를 올리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포교가 불교중흥" 선서화로 알린다

11월 2~8일 불교중흥 위한 특별 선서화전

고승 선필 · 선화 300여 점 선봬
모든 작품 회주 자승 스님 '희사'
평소 "고군분투 단체 도움" 지론
어려움 겪는 교계단체 지원 사용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초대형 선서화전이 열린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돈관 · 덕문 · 호산 · 성행 · 현민 · 보인)는 9월 9일 동국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선서화전의 주제는 '새로운 인연(因緣)'으로, 이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의 평소 원력과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 자승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천행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임을 분명히 하며, 코로나19에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계 단체들의 지원을 강조해왔다. 일선 교계 단체들의 포교 활동들은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이 불교와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추진위원장 돈관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 불교계는 적극적인 방역 실천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왔지만, 이 과정에서 사찰뿐 아니라 교계 언론, 교육, 의료, 해외구호, 포교단체들은 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겪으며 침체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으로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이 '어려움에 처한 교계 단체들이 포교의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시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포교가 곧 불교중흥'임을 강조하는 선서화전인 만큼 종단적인 참여가 이뤄진다. 선서화전 증명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고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여한다.

공동봉행위원장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 호계원장 보광 · 교육원장 진우 ·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이 참여한다.

선서화전에는 고승들의 선필(禪筆), 선화(禪畵)부터 한국화 명인들의 작품까지 300여 점이 출품 · 전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시와 교계 단체 지원을 위해 자승 스님이 희사했다.

선필 대표작으로는 △진제 스님의 '붓다로 살자', '불광보조(佛光普照)' 등 4점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10폭 병풍', '무진장(無盡藏)' 등 5점 △청담 스님 '불(佛)' △월하 스님 '대방무외(大方無外)' 등 2점 △석주 스님 '인중유화(忍中有和)' 등 2점이다. 또한, 원담 · 월산 · 고산 · 지관 · 법흥 · 원명 · 성파 · 설정 스님 등 대덕 고승들의 선기가 전해지는 선필 160여 점도 선보인다.

선화는 △석정 스님의 '달마도', '일원상' 등 80여 점 △송담 스님의 '달마도' 2점 △중광 스님 '우담바라' 등 10점 △정현 스님 '판치생모' 등 5점 △수안 스님 '참좋은인연입니다' 등 25점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범주 · 일장 · 원학 · 법관 · 성효 스님 등 그림을 통해 수행의 경지를 대중에 회향해 온 스님들의 선화 140여 점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청남 오제봉 · 남농 허건 · 여초 김응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와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자리를 함께해 수준 높은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공동추진위원장 호산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은 자승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선서화 및 작품들을 교계 단체 지원에 전액을 희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가시화됐다"면서 "이번 전시는 자승 스님이 희사한 선서화 등 300여 점의 작품을 기반으로 이번 전시에 뜻을 함께하는 스님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진행된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는 동체대비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 한국불교중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전법과 포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선서화전 출품 작품은 전시에 앞서 사전예약을 통해 일부 판매가 이뤄지며, 전시 현장에서도 직접 판매될 예정이다. 전시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언론, 교육, 의료, 해외, 청소년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 및 각 단체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금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2주년인 11월 11일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작품 화보 6 · 7면〉

등록 사암도 경내지 미등록시 선거 제한

조계종 중앙종회, 10일 221회 임시회

선거법 자격 제한
범위 확대 개정해
초심호계원장에는
덕조 스님 선출돼

앞으로 미등록 사설사암 뿐 아니라, 종단에 등록한 사암이라도 경내지를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종단 미등록 · 미신고 법인의 임원이나 권리인, 운영권자 등이 이를 양도 및 인계해 권리가 상실됐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받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9월 10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제개정안을 비롯해 산중총회법과 지방종정법, 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초심호계원장에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회는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첫 안건으로 다뤄진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요건 및 제한 규정이 일부 모호해 법리해석을 달리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심사시 사설사암과 사찰법인, 사찰 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재산 등록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등록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권 ·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와 운영권자'만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이라도 사찰 경내지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사설사암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종단 미등록 · 미신고 법인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 사찰법인 및 사찰 보유법인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및 인계의 사유로 권리가 상실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까지 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과 연계된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중총회법은 구성원 자격을 명시한 조항 중 미등록 사설사암 · 사찰 경내지와 관련한 부분을 선거법상 자격 제한규정에 준하도록 개정됐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산중총회에서 재임 중인 본사주지가 후보로 등록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 직을 정지토록 한 현행규정을, 본사 주지 1인만 등록시 본사 종무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주지 직무를 계속 유지토록 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현행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자격 제한 삭제 및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계법상 기본자격요건 중 70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기존 재적교구본사와 교구종회를 거쳐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절차를 교구본사만을 경유토록 개정했다. 또 대종사 및 명사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21년 9월부터 11월 정기회 시점까지 운영키로 했다. 종정감사특별위원장에는 성행 스님이 선출됐으며, 구성과 일정은 의장단과 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 · 간사 등에 위임키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4인을 1개 조로, 총 20개조를 구성해 종무행정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의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토록 하며 감사팀 당 감사대상 사찰을 4개 사찰로 지정해 총 80개 사찰을 종정감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종회는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이는 호성스님의 사임에 의한 것으로, 신임 초심호계원장에는 덕조 스님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